

# 농업인 90% “농업 승계자가 없어요”

농업인 2명 중 1명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을 것이며, 10명 중 5명 이상이 현재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인 90% 이상이 농업 승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농촌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전국 농촌 지역 4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과 문화·여가 여건’ 부분을 조사한 ‘2014 농업인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삶이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이 45.0%, 보통이 42.1%,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12.9%로 조사됐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35.7%), 경제적 안정(12.8%), 대인 관계(6.2%), 일·직업(2.9%), 지역 생활 환경(0.9%) 순

## 농진청, 농업인 복지 실태 조사

### 2명중 1명 “건강 허락하면 은퇴 안해”

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에 대해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가 51.5%, ‘잘 모르겠다’가 31.1%, 이미 은퇴한 경우는 6.1%로 나타났다. 농업 계획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가 63.8%로 가장 많았으며, ‘축소할 계획이다(24.1%)’가 뒤를 이었고 ‘확대할 계획이다(7.4%)’,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4.7%)’ 순이었다.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는 9.4%였으며, 없는 가구는 58.9%,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한 가구는 31.7%로 전체 조사대상 농업인 90% 이상이 승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지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연구관은 “이번 조사는 농촌 생활과 복지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각종 연구·지도 사업, 정책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농촌지역 가구’를 표본 추출, 여론조사기관인 코뮤니타스에서 다단계통계추출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포인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자업체 M&A 사례 (단위: 달러)

| 국내업체 | 인수기업      | 인수금액     | 시기      | 현재 법인명                       |
|------|-----------|----------|---------|------------------------------|
| 흥농종묘 | 세미나스(미국)  | 1억4,800만 | 1998.6  | 몬산토코리아 (2005년 세미나스를 몬산토가 인수) |
| 중앙종묘 |           | 1,800만   |         |                              |
| 서울종묘 | 노바티스(스위스) | 3,800만   | 1997.10 | 신젠타(스위스)                     |
| 청원종묘 | 사카타(일본)   | 1,800만   | 1997.3  | 사카타코리아                       |

## 낙도 어업인 수산직불금제

### 16일부터 본격 시행

#### 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낙도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직불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불제 시행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직불제법 시행령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 조건불리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어업인 ▲고소득자(종합소득세의 최상위 과세표준 적용자) 및 고액자산가(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및 다음등급 과세표준 적용자) 등은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낙후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산직불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사용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부당 수령한 직불금 환수절차로 행정관청은 환수 사유 및 금액 등을 서면고지하고 최대 4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수산직불제법은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해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근식 소득복지과장은 “시행령이 완벽해 직불제법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행령 등 제반법령이 제정된 만큼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강진농협, 복합 유산균 배양센터 준공

강진농협(조합장 김근진)은 지난 7일 복합유산균 배양센터 준공식을 갖고 친환경유용미생물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배양센터에 기술을 제공한 (주)지에스엘바이오(대표 이천호)는 미생물을 이용해 순수 자연상태로 흙을 되살려 농·축산물의 획기적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는 친환경기업이다. <강진농협 제공>

## 농산물 직거래 대표 사업자 뽑습니다

### aT,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

#### 4개 부문 사업자 선발 시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1일까지 ‘2015 농산물 직거래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aT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3회째로 농산물 직거래에 앞장선 대표 사업자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직거래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평가를 통해 4개 부문(로컬푸드직매장·직거래장터·우수사업모델·기타)별로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각 1곳씩 총 12개 사업자를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마케팅 자금이 지원되고 올 하반기 직거래 페스티벌 때 부스설치 등으로 홍보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대상은 직거래 사업자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소비자 그룹이며 희망자는 aT 관할지역본부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aT 누리집(www.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동부팜한농 인수 유력 후보 외국업체 부상

### ‘종자 주권’ 지킬 수 있을까

#### 자체 개발 종자 600개

#### 日 오릭스 관심 가져

최근 시장에 매물로 나온 국내 선두 종자 회사의 유력 인수 후보로 외국업체가 떠오르면서 ‘종자 주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부그룹이 농업부문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을 계열 분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외환위기 때 종자 주권을 뺏긴 경험을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동부그룹은 지난 달 31일 동부팜한농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계열분리 및 매각에 합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매출 60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동부팜한농은 종자와 작물보호제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업체다. 자체적으로 개발해 보유한 농작물 종자는 600여개에 이른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농작물 로열티는 총 81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3억2000만원에 그쳤다. 또 2020년에는 해외 종자의 로열티 지급액이 7900억원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종자 시장의 약 50%를 외국업체가 점유하는 셈이다.

현재 동부팜한농의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일본계 금융자본인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코리아(오릭스PE)가 관심을 보이는 등 인수를 희망하는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오릭스가 동부팜한농을 인수하면 동부팜한농이 개발한 종자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

동부팜한농과 함께 국내 종자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는 농우바이오도 지난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종자 주권이 외국에 완전히 뺏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작년 9월 농협경제지주에 인수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 해 농우바이오 경영권 매각 입찰에는 농협경제지주 외에도 사모펀드인 IMM PE와 스티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당시 농협경제지주가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사모펀드에 인수되면 불거질 수 있는 종자 주권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점도 작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동부팜한농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국내 종자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도 많은 농산물 종자를 외국에서 사오는 상황이라서 동부팜한농마저 외국에 팔리면 종자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척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리스토랑직접)

####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서구 벽진동 대지 724㎡ 매 4억9천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10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682㎡ 9.8억(신설도로접)
- 광산구 삼도동 1종주거지역 전 6,900㎡ 19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직접)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결혼, 고희,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환환 ▶ 100,000  
▶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